

번역가도 브랜드 시대



박진현의 문화카레

시공이후공(詩窮而後工)

최근 중국 문단이 한 30대 작가의 도발적인 발언으로 발칵 뒤집혔다. 주인공은 후난(湖南)성 작가협회 회원인 황후(黃輝). 1993년부터 200여 편의 시와 산문을 발표해 후난성 문단에서는 제법 지명도가 있는 작가다. 그런 그가 "또 많은 여성에게라면 기혼, 미혼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입대'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그는 현지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정서적인 독립과 완전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한다면 (나를 입대한 여성에게는) 섹스 등 모든 의무를 다하겠다"며 "원고료 500위안(약 5만9천200원)이 월수입의 전부인 상황에서 유유자적하게 시를 쓸 수 없었노라"고 말했다.

이 베이징(발) 뉴스는 새삼 '작가에게 돈을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 흔히 글 쓰는 일을 업(業)으로 삼는 작가들에게 돈을 펜을 두들기 하는 금기(禁忌)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다. 원고청탁을 받은 작가가 원고료부터 챙기면 왠지 '이미지가 확~ 깨진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이렇다 보니 작가들은 가난의 고통을 숨기며 문화의 순정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담금질해야 한다.

그 중에는 알뜰한 일상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삶을 문학의 원천으로 승화시킨 선배 문인들도 적지 않다. 지난 시절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토지', '객주' 등 한국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들이 평범한 소시민이나 민중의 공감을 끌고 있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최근 한국 문단을 둘러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풍요로워졌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지만, 200여 개나 되는 문학상과 다양한 문예지,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 등 문화 인프라는 어느 문화선진국 부럽지 않다. 그렇다면, 문단의 풍요함과 비례해 작품의 수준도 향상됐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일부 작가들의 경우 원고료수입에 연연한 나머지 집필분량은 늘어났어도 작품의 순도(純度)나 긴장감은 떨어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매년 이맘때면 중국의 문화도들은 저독한 사랑과 같은 '신춘 문예야람'이 빠진다. 이들 '문정(文政)'들은 경제적 풍요 대신 창작과 공평의 고통이 예견된 작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물질 만능의 시대, 작가들에게만 '할배가'의 내림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할 일일지 모르나, 문학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헛된 정성'은 필요하다. 그 때문일까? 더욱이 중국 송나라 시인 구양수(歐陽修)의 "궁하면 궁할수록 시가 더욱 공예해진다"는 '시공이후공(詩窮而後工)'의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번역가도 브랜드 시대다. 외국 도서의 경우 필자의 이름이 생소하다면 번역가의 이름을 눈여겨 보는 것이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법이다. 한 시민이 종종서림 외국소설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를 비롯한 '냉정과 열정사이 Rosso', '레베카' No.3' 등 그의 작품이다. 남편인 양영관씨 역시 '플라이, 대디, 플라이'를 번역해, 이들 부부는 일약 번역의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다.

마루야마 겐지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여러 권 번역했던 김현미씨, 무라카미 류와 아사다 지로 등 현재 일본작가들을 번역하고 있는 권남희씨 등도 내로라하는 일본어 전문 번역가들이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

의 작품을 오래 전부터 번역해온 이나야씨는 파묵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덩달아 스타덤에 오른 케이스. 한국외대 터키학과 교수인 이씨는 파묵 외에도 대부분의 터키 작품들을 한국어로 소개하고 있다. 영미권 도서는 알랑 드 보통의 책을 주로 번역한 정영목씨나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등을 번역한 공경희씨의 브랜드 파워가 눈에 띈다.

중남미권에는 마누엘 푸이, 마르케스, 보르헤스 등의 작품을 번역한 송병선씨,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번역한 최정수씨 등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15 광주일보 제17618호 2006년 12월 4일 월요일



광주장로성가단 연주회

오늘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장로성가단(단장 박종남)이 4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14회 정기 연주회'를 공연한다.

광주지역 57개 교회 장로 87명으로 구성된 성가단은 이날 공연에서 '경배합니다' '빛나는 별빛 아래' '예수 주만 의지하네' 등 9곡의 합창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단원들의 부인으로 구성된 여성합창단이 '세상 만드신 하나님'을, 남성 4중창단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다' '구의 동산' 등을 들려준다.

연주회 지휘는 광신대 반옥 교수, 반주는 박수영 교수가 맡는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11-624-9799

/특정기자 ksj@kwangju.co.kr

신수경 피아노 독주회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신수경(사진) 피아노 독주회가 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현재 전남대 교수로 재직중인 신씨는 서울대 출신으로 미국 일리노이 음대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실기와 화과 모두 우등 졸업하며 연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작품을 들려줄 예정. 레퍼토리는 일명 '파리 소나타' 중 하나인 '소나타 B장조 K.333'과 '피아노 협주곡 A장조 K.488'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번역가 이름이 판매고 좌우 영·불, 남미 전문번역가 등장 스타마케팅 대리번역 논란도

콜라야 할까. 원 저자의 이름이 생소한 경우라면 번역가의 이름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다. 중요한 것은 책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다.

이 때문에 출판가에는 전문 번역가들도 등장했다. 영·불어를 번역하는 강주현씨는 초스키 전문가로 통한다. 그가 번역한 '초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는 프랑스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렸을 정도. '강주현' 초스키 관련 책 한국어판은 예닐곱 권에 달한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이윤기씨는 '신화' 전문. 불문학의 '그리스·로마 신화' 시리즈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 모두 유명하다.

'일본어 전문'인 김남주씨는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리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 현재 베스트셀러 종합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쿠니 가오리의 '엔

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를 비롯한 '냉정과 열정사이 Rosso', '레베카' No.3' 등 그의 작품이다. 남편인 양영관씨 역시 '플라이, 대디, 플라이'를 번역해, 이들 부부는 일약 번역의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다.

마루야마 겐지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여러 권 번역했던 김현미씨, 무라카미 류와 아사다 지로 등 현재 일본작가들을 번역하고 있는 권남희씨 등도 내로라하는 일본어 전문 번역가들이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

의 작품을 오래 전부터 번역해온 이나야씨는 파묵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덩달아 스타덤에 오른 케이스. 한국외대 터키학과 교수인 이씨는 파묵 외에도 대부분의 터키 작품들을 한국어로 소개하고 있다. 영미권 도서는 알랑 드 보통의 책을 주로 번역한 정영목씨나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등을 번역한 공경희씨의 브랜드 파워가 눈에 띈다.

중남미권에는 마누엘 푸이, 마르케스, 보르헤스 등의 작품을 번역한 송병선씨,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번역한 최정수씨 등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9급 공무원 국가직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 채용시험대비

행정직, 교정직, 농업직, 소방직, 경찰직

개강 12월 1일 합격률 최고

www.Chonnamgosi.co.kr

www.lawbig.co.kr 채무/압류/추심 해방!!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여기 길이 있습니다.

전문상담원 1577-8682, 011-625-6097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www.daindong.com

신한국부동산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부지

www.shinkook.com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매

www.ilgagongin.com

믿음공인중개사

창단지역, 광안동, 활게동 상권지역 상가건물 매도

www.mitim.com

법원경매

GG경매컨설팅(주)

www.ggwangju.com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2006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 (극장식 웨딩홀) 만족도!!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 선정 기념!!

연말 송년모임을 호텔뷔페식으로..

www.ccgwangju.co.kr